

우리의 소리로 1천여 명의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 한 자리에

- 2. 2. 문체부, 국립극장에서 국악으로 설맞이 음악회와 신년 인사회 개최
-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의 안녕과 행운을 빌고 힘찬 비상을 기원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 1천여 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설맞이 음악회 & 신년 인사회’가 2월 2일(금)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과 함께 우리 문화의 정수와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로 2024년 새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

설맞이 음악회에 앞서 문화예술·체육·관광계가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 진행

유인촌 장관은 먼저 국립극장 해오름로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음악회를 찾은 귀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우리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분야 발전에 힘쓰고 있는 참석자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한 후 새해 인사와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이어 해오름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설맞이 음악회’에 앞서 신년 인사회를 함께한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민속악단이 대취타와 길놀이(사자춤)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문화예술계 신수정, 신달자, 이정길, 체육계 이에리사, 박태환 등이 덕담과 소망을 주고받으며 힘을 북돋는다.

이어서 열리는 ‘설맞이 음악회’는 대한민국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이 협력해서 마련한 자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통 예술인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모여 ‘전통예술’ 신년 음악회를 선사한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의 5개 예술단체*와 국립부산·민속·남도국악원의 118명이 협력해 다채로운 전통예술 선사

* 국립극장(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유인촌 장관이 무대에 올라 축문을 낭독하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비나리’로 앞길의 행복을 빌며 본격적인 음악회의 막을 올린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금회북춤’으로 풍요를 기원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단원이 모여 완성한 67인조 연합오케스트라가 도전과 희망을 노래하는 곡 ‘프론티어’를 연주한다. 67인조 연합오케스트라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까지 손을 잡아 태평소 협주곡 ‘호적 풍류’로 마음에 평화를 올린다. 풍성한 우리 남도민요를 전하기 위해 국립창극단과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도 ‘남도창과 관현악’으로 뭉쳤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함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으로 장식한다. 한국인의 진정한 흥과 신명으로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유인촌 장관,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으로 한국 문화예술·체육·관광 소망 성취 기원”

유인촌 장관은 “이번 ‘설맞이 음악회’는 대한민국 전통 예술인들의 ‘우리 소리’로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처음 기획했다.”라며,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2024 갑진년에 상서로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케이(K)-컬처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전 세계로 생동하고,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파리올림픽을 비롯한 현장에서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를, 우리 관광산업이 회복을 넘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힘을 북돋는 자리”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포스터

| | | | | |
|-------|--------------------|-----|-----|--------------------|
| 담당 부서 |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 책임자 | 과장 | 박소정 (044-203-2731)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현 (044-203-2734) |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2024.
2.2.
금 15시
국립극장
해오름

설음
맛의 위화회
& 신년인사회

문의 02-2280-4114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극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악원